공공 주택 주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뉴욕시가 비상 사태를 겪고 있는 동안 공공 주택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뉴욕시 주택국(New York City House Authority, NYCHA)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NYCHA는 뉴욕시의 비상 사태 기간 동안 **주민 퇴거 조치를 중단**합니다.

소득 감소를 겪은 세대의 경우, NYCHA 의 임대 생활고(Rent Hardship)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경우, 임대료 삭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총 소득의 최소 5% 감소
- 현재 임대료가 세대 순소득의 30% 이상을 차지
- 소득 감소가 지난 2개월간 지속됨

이에 해당하는 주민은 NYCHA 셀프 서비스 포털(Self-Service Portal) (https://selfserve.nycha.info)에서, 또는 자산 관리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중간 재인증 양식의 배송을 신청하여, 임대료 삭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완전히 사라진 세대의 경우, NYCHA의 무소득(Zero Income)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여 자격 심사 면담을 신청하십시오.

공공 주택 주민은 우편, MyNYCHA, 온라인, 전화를 포함하여 총 8가지의 임대료 지불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n.nyc.gov/payren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YCHA는 뉴욕시, 뉴욕주, 연방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COVID-19와 이것이 주택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COVID-19 진행 상황에 맞춰 주민 여러분에게 계속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718-707-7771를 통해 고객 안내 센터(Customer Contact Center, CCC)에 연락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NYCHA 홈페이지(nyc.gov/nych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